

## ■ 2025년도 원로예술인 공연지원사업 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5년 원로예술인 공연지원 사업
- 회의일시 : 2025년 5월 19일(월) 13:00~17:00
- 회의장소 :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집 영상회의실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김미영, 김승국, 김승일, 박준영, 배선애, 송현민, 양근수, 제상아 총 8인

### ○ 해당 사업의 지원 취지 및 목적

본 사업의 목적은 '원로예술인에 대한 창작활동 지원을 통해 온 세대가 함께 향유 할 수 있는 우수 문화예술 콘텐츠 발굴'과 "지원 사각지대인 원로예술인의 활동 기반 제공"을 위하여 기초공연예술 분야의 원로예술인이 참여하는 공연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작년도 장르별 1, 2차 자문위원회를 통해 본 사업의 지원 형평성 개선을 위한 사업 기준이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원로예술인 실연 중심의 창·제작 환경 조성을 위해 장르별 세부 기준을 도입하고, 창작자 1인 필수 조항 삭제 및 원로예술인 참여 비율을 30%에서 50% 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원로예술인이 행인 역할 수준의 카메오나 단순 엑스트라 등 주요 출연진이 아닌 경우 참여를 제한하여 원로예술인이 주축으로 창·제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강화하였습니다. 추가로 공적 재원의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안식년 제도(연속 2년 차 선정단체 3년 차에 지원 불가) 도입 및 국가, 시도무형유산 예능보유자와 전승교육사 참여 불가 등 제도를 신설하여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원로예술인 지원이라는 목적성에 부합하도록 보완되었습니다. 다만, 장르 특성상 원로예술인의 실연 참여가 어려운 '발레, 현대 무용' 장르는 참여율 미충족의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현장성을 반영하였습니다.

### ○ 심의기준/가중치 및 심의방법

올해의 심의 기준은 '사업지원의 타당성(40%)', '사업계획의 충실성(30%)', '수행 단체의 역량(30%)'으로 전년 대비 "수행단체의 역량" 비중을 10% 상향하여 실질적인 단체의 운영 역량을 더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실제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2025년 본 사업의 공모 접수는 2025년 4월 4일(목)에서 18일(금)까지 15일간 진행되었습니다. 신청 접수 건은 총 109건(4,242백만원)이 접수되었고, 제외 대상 참여(국가, 시도무형유산 예능보유자 및 전승교육사 참여 및 창작 주체 선정단체 중 실질적으로 동일한 단체가 사업자만 바뀌어서 신청한 경우) 사유로 총 6건이 행정 결격 처리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최종 103건(3,997백만원, 장르별 연극·뮤지컬 39건, 무용 8건, 음악 34건, 전통예술 22건)을 심의대상으로 통합심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전수검토제 진행 후 사전 회의 통해 장르별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온라인 가채점 방식으로 1차 채점을 진행하였습니다. 2차 심의는 1차 채점 점수를 기반으로 현장에서 심의위원 대면 종합토론 방식의 회의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장르별 전문성과 현장성을 반영하여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단체를 선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추가로 '지역균형지원제'에 따른 지역 배분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 ○ 심의 과정과 결과 요약

지원 총액이 전년 대비 10백만원(1.4%) 소규모 감액되어 전체 선정 건수는 대략 19~23개로 예상되었는데, 작품의 완성도에 대한 기대 및 더 많은 원로들의 현장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는 장르별로 가능한 지원건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총 23개 단체를 선정하였습니다.(전년 대비 1건 증가) 다만, 이 과정에서 단체별 지원신청액의 일부 감액 조정이 불가피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개별 지원신청서의 예산 내용과 사업 내용 수준을 세심히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지원 금액을 조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올해 선정단체 평균 3천 9백만원 수준으로 신청하였는데, 특히 음악 분야는 지원신청액이 평균 2천 9백만원 수준으로 타 장르 대비 신청액이 낮은 점과 장르적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 음악 장르 배분액 내에서 심의를 통한 특별한 조정 없이 대부분의 신청 당시의 액수를 전액 지원하거나, 극히 일부만 조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선정된 23개 단체는 '지역균형지원제'를 고려하여 수도권 17건(69.6%), 비수도권 6건(26.1%)으로 선발되었으며, 장르별로는 연극·뮤지컬 8건, 무용 3건, 음악 7건, 전통예술 5건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 ○ 심의위원회에서 합의된 중점 고려사항

심의위원회에서 합의된 중점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사업의 심의 기준의 40%에 해당하는 "사업지원의 타당성"에서 요구하는 동시대성, 독창성 및 원로예술인의 비중과 중요도를 고려하여 원로예술인이 주축이 되어 향후 예술적 가치의 확장 등이 기대가 되는 작품의 경우, 또는 원로예술인들이 주축이 되는 공연 중 시의성과 동시대성을 갖추어 과거 호평을 받았던 실연작 중 시대적 감성을 반영한 작품을 재해석하여 예술사적 의미가 있는 경우, 또는 상투적인 레퍼토리 내용이 아닌 새로운 시도나 새로운 창작 작품(초연작 등)의 경우 등 원로예술인만의 독창성과 예술적 가치를 달성할 수 있는 유의미한 작품을 최우선 순위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외에 지역에서 꾸준히 지역 문화예술에 기여하며, 향후에도 지역문화콘텐츠 활성화에 기대가 되는 작품 위주로 선정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 ○ 소회 및 당부사항

각 지역에서 다양하고 풍성한 공연들로 이번 원로예술인 공연지원 사업에 지원해 주신 많은 단체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를 살아내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데, 그런 의미에서 과거를 든든히 버티며 현재를 만들어주신 원로예술가들의 노고와 예술적 성취를 다시 한번 무대로 이끌 수 있는 이번 지원 사업은 한국 문화예술 발전의 중요한 발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심의에 참여한 대부분의 단체가 문화예술 현장에서 폭넓은 경험과 예술성을 바탕으로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기획력과 실행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심의에서 다루어진 중점 선정 관점은

첫째, 각 단체가 본 사업의 목적과 취지를 충실히 이해하여 예술적 성취를 이루려는 열정이 객관적으로 보이며, 특히 원로예술인에 대한 예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구성된 사업계획을 수립한 단체를 선정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원로예술인의 경험과 지혜를 어떻게 동시대에 효과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지, 그 안에서 단체가 가진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하며 독창적인 작품세계를 그려가고 있는지, 그리고 단순히 원로예술인을 기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원로예술인의 예술적 유산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후배 세대의 예술가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지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셋째, 작품이 온 세대가 함께 보고 즐길 수 있는 모두의 공연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각 단체의 제안이 관객에게는 감동을 주고, 예술가들에게는 영감을 불어넣으며, 나아가 문화예술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도 심도 있게 검토했습니다.

넷째, 문화소외지역의 원로예술가들이 주축이 되어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지역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가 제공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일부 신청작 중 원로예술가들이 참여하기는 하나 주도적인 참여가 아니거나 선정을 위해 대상화된 작품들, 기존 단체의 레퍼토리에 원로예술인을 일부 끼워 넣은 형태로 보이는 공연이나, 갈라 공연 형태로 이루어져 서류상 작품의 변별력을 찾기 어려운 공연, 예산의 배정이 적절치 못하거나 원로예술가에 대한 예우가 적절치 않은 사업들은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차년도 지원사업 공모 지원 시 충분히 고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한된 예산으로 기대가 되는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선정되지 못한 단체들이 있습니다. 선정되지 못한 단체들의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원로 예술인들이 단순히 과거의 예술을 재현하는 것을 넘어, 현재와 미래의 예술적 흐름을 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관심을 두고 지속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원로예술인 공연지원 사업 심의위원 일동